

부활 제 3 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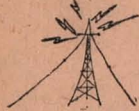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김 불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서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기도서 P. 285 B해
제1독서(사도 3, 13-15, 17-19)
제2독서(요한 I 2, 15-5)
복음(루가 24, 35-48)

□ 감 론



주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한 불 섭 신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안절부절하며 의심을 품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손으로 만져보도록 해야 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아라. 틀림없이 나다! 차 만져 보아라.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보라시피 나에게는 있지 않느냐?" (루가 29. 39)? 그런데도 제자들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어리둥절해 있기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청하셨다. "여기에 무엇이든 먹을 것이 좀 없느냐?" (41절)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음식을 드셨다.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앞에 그 이상 의심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과 더불어 그들 앞에 와 계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은 영적생존만이 아니라 육적인 생존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못박힘, 그리고 죽음은 한낱 역사적인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초자연적 사건과 더불어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제대상 제사를 통해 영원히 계속되는 희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또한 부활하시어 영광 육이 승천하신 주님은 신적 존재양식으로 우리안에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며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부활은 승리의 생명이요 기쁨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회개하며 죄를 용서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서 전체의 줄기를 이루는 것은 주의 오심과 활동, 그리고 메시아의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건의 가장 깊은 의미와 더불어 부활의 효과는 인류의 죄를 사함입니다. 그러기에 크리스찬 메시지란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 인류를 죄에서 풀어주는 이 사건을 증거하는 것이며, 증거 방법은 말을 통해 또 생활을 통해 어떠한 면에서든 피로써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증언을 하는데 필요한 힘을 인간은 하느님의 성령으로부터 받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49절)" 성령은 내심의 신앙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람들은 감각적인 방법으로 즉 의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은 크리스찬 메시지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생애 설명보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언인 것입니다. 이 사실들이 인류 구원사의 중심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장계천주교회 주임신부)



나물캐러 간다고...

-어느 일기(4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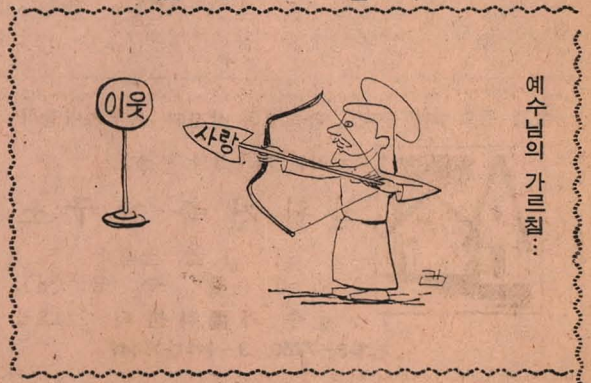
아침 출근길부터 별로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니다. 단원 시내버스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 보면 옷은 옷대로 엉망이고 신발은 신발대로 흙투성이다. 버스요금은 올랐어도 썩비는 나아지게 없다. 출근길에 만난 어떤 분의 말이 불쾌감을 더 돋군다. "있는 사람들이 타는 택시는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수백대가 증차되었는데, 없는 사람들이 애용하는 시내버스는 더 줄어든 기분이요."

오늘 아침에는 아주머니들이 눈에 많이 띈다. 무엇이 그리 바빠서 아침 일찍부터 버스를 탔는가? 어머니 체육대회 선수는 아닌게 분명하고, 도민 체육대회 응원단도 아닌게 분명하다. 알고 보니 나물캐러 가는 아주머니들이다. 진안으로 간단다. 퇴근 버스에서도 여러분을 만났다. 고사리를 꺾어 온단다. 그나마 짜증나는 출근길에 새로운 출근자(나물캐러 가는 아주머니, 놀러가는 계군)들이 반갑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들은 운동장에서 뭇새 산을 타야 하는 아주머니들. 일년 내내 일에 정신이 없다가 모처럼 놀러가는 시골의 계군들. 이 모두가 우리의 이웃들이다. 아니, 바로 우리다. 그런데도 비좁은 시내버스를 더욱 비좁게 하는 그들인지라 미워지는(?) 것이다. 미워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도.

봉급도 일주일만에 바닥이 났다. 계속 오르지만 하니 도매제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참기는 참아야 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럴 수 만은 없다. 올려주지 않아도 될 교통요금이라는 보도가 있다. 기사나 만화에 그렇게 공박을 당해도 항변 한 번 못하는 것을 보면 더욱 분통이 터진다. 하기가 뭐라고 말해 보았자 누가 그 말을 믿기나 할까?

숲 정 이 산책



예수님의 가르침...



감사합니다

순정이 편집실 전화 ④ 2935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협조에 힘입어 전주 교구보(全州教區報) 순정이 편집실에 전화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개통 예정일은 5월 초. 전화번호는 ④2935 거듭 감사드립니다.

78년 12월 10일자 순정이 2면 하단에 이런 호소가 있었습니다. -「전화 좀.../여러분이 아껴 주시는 순정이 편집실에 전화가 없습니다. 고충이 큼니다. /본당이나 단체, 개인별 성금으로 편집실에 전화 한 대 안 놓아 주실래요. 친원도, 5천원도, 만원도, 좋습니다. -순정이 편집실」

12월 15일, 시골 공소 학생(정읍군 배인면 거산리 서분도)의 편지는 순정이 편집실에 큰 힘을 주었습니다.

-「저의 조그마한 힘이 보탬이 될까 하여, 제 용돈을 아껴 쓰기로 하고 성의를 표합니다. 적다 하지 마시고 받아 주십시오. /좋은 순정이, 내용이 알차고 우리 신자들의 신앙심을 돋구어 줄 수 있고, 자신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순정이 기사 부탁드립니다.」

잇달아 답지된 정성은 개인적으로는 5백원부터 3만원에 이르기까지 29명이, 또 6개 본당 사도회가, 여섯차례의 연수회에서, 그리고 5개 단체에서 총384,725원을 모아 주었습니다.

다달이 내야 할 전화요금 조차 예산하지 않은 이 사업이지만 오로지 여러분의 도움만을 믿고 시작했고, 또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지구>

신태인...서분도(1천원) 수류...이순성 신부(5천원) 고창...이연우(5천원) 정읍...강인찬 신부(5천원), 김정수 (2천원)

<제2지구>

화산...사도회(5천원), 정규암(1천원) 월명동...이수현 신부(5천원), 전현배(3만원) 용안...박풍식(5천원)

<제3지구>

창인동...어떤 청년(2천원) 황등...강덕창 신부(5천원) 주현동...어떤 젊은이(5백원), 장완태(5천원) 고산...장경암(1만원)

<제4지구>

전동...김발도르메오(1천원), 이현재(5천원); 사도회(1만원), 유석중(5천원), 김병오(5천원) 노송동...권석길(3천원), 유영철(5천원) 북자...사도회(5천원) 덕진...송영기(3천원), J. U. C(2천원), 전강준(3천원), 중앙...장남수(1만원), 김강열(1만원), 방지거 3회(7천원), 김정



성소 계발(聖召啓發)은 크리스찬의 의무!!!

우리는 지난 사순절동안 사제양성 후원사업을 위해 하얀 토끼를 키웠습니다. 이 일은 성소 육성을 위한 것이고 또한 이 일은 크리스찬의 의무입니다.

오늘날 물질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사회정의는 망각되었고, 인간의 정신적 영신적 가치관마저 마비되어 가는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필요에 응할 수 있는 사제의 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뜻있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기꺼이 따를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또한 이 일의 뒷받침을 위해서 얼마나 봉헌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일생을 성직에 바친 은퇴 사제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졌었습니까?

금년도 성소주일(5월 6일)을 맞아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교구에서 벌이는 성소주일 행사에 적극 참여합시다. 과외수업을 보내는 정성의 얼마를 성소주일 행사에 쏟으시겠습니까? 아직도 하얀 토끼가 그냥 집안에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하얀 토끼에 정성은 다했는지요?

□ 성소주일 행사 안내

아동부...6일 오후 2시까지 중앙성당에 집결. 합동미사 및 특별강론. 슬라이드 상영. 가톨릭 센터에 전시된 신학교 및 수도회 소개 전시장 관람

중등부...6일 오후 2시까지 전동성당에 집결. 합동미사 및 특별강론. 특별강연, 슬라이드 상영. 좌담회, 수녀원 방문(여학생).

대학·일반부...6일 오후 2시까지 가톨릭센터에 집결. 미사 및 특별강론. 특별강연, 신학교 및 수도회 소개. 좌담회

□ 신학교 및 각 수도회 소개 사진 및 자료 전시회... 5일 오후 1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가톨릭센터에서 □ 성체회 수녀원 개방...6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생(5천원), 장상준(5천원) 서학동...오현택 신부(3천원) <제5지구>

무주...사도회(5천원), 설천공소(2천원), 임실...오정남(1천원), 사도회(1만원) 진안...사도회(1만원)

<기 타>

범석규 신부(5천원), 익명 신부(5천원), -사무장 연수회(13,190원), 평협 산하 단체 임원연수회(4,650원), 사도회 임원연수회(2차...69,800원), 공소회장 연수회(2차...38,525원), 전주 젊은 신우회(5천원), 전매청 성화회(24,060원), 보광출판사(1만원), 전주해성중 축구부(3천원), 김준호 신부(5천원)

□설계·감리 허가수속 □하느님의 성전과 교형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상담 환영!!!

신원 건축 연구소

1급 건축사

김 철 수 (금구(인))

☆ 전주 가톨릭센터 220호실
전화3-7780, 3-(야간)1449

◆ 3년동안 뒷손을 보아드립니다 ◆

가정용목욕탕. 온수. 난방시설 및 수리전문. 보이러판매 본사직영 호남출장소가 전주로 옮겨졌습니다.

한국 流 온수 온돌 공사

(본사 직영 호남 출장소)

전주 ③ 4341 군산 ⑥ 3032 이리 8629

한 동 압 (모역세)



슬픈 농부의 아내

박 영 호 신부(원주교구)

오늘 아침, 우리들의 밥상에 놓여진 하얀 쌀밥, 정말 맛있었죠? 그러나 그 맛 뒤에 숨겨진 농부들의 피땀을 아시는지요?

얼마 전 관공성사를 주기위해 어떤 농촌 공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국민학교 동창생인 명숙이를 만났어요.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딸아이를 등에 업고 그보다 좀더 큰 딸애는 안고 있었습니다. 집에 또 다섯살 난 딸아가 하나 더 있나나요?

처녀 뎨 꽤 예쁘장하던 명숙이였는데 정말 몰라 볼 정도로 변했어요. 짐게 그늘은 얼굴, 두터워진 손, 그야말로 생활의 고뇌가 가득 담겨 있는듯 했습니다. 만일 그녀가 도시에서 태어났다면 지금쯤 못 청년들의 시선을 끄는 아름다운 여사원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얀 농촌에서 태어나 어떤 가난한 농부에게 시집간 그녀는 계속 남편과 농사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농촌의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그렇습시다만 그녀는 날이 새기가 무섭게 쟁기를 들고 논밭으로 나가야 했죠. 찌는듯한 더위에도 훌훌 달아오르는 열기속에서 땀을 매야하고 지독한 농약냄새에 코를 막고 농약을 뿌려야 했습니다. 한번은 농약을 뿌리다 농약에 취해 쓰러진 적도 있었대요.

가솔이 되어 벼들의 이삭이 패고 여물기 시작할 때, 농부들은 결실의 보람으로 지난날의 고됨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삭이 패자 까맣게 죽어가는 벼들, 그 이름이 "노풍"이라나요?

지난 봄 먼서기들이 나와 풍부한 수확을 낸다고 떠들며 거의 강제로 심게 했던 "노풍" 그 앞에서 그녀는 지독한 슬픔을 짓씌어야만 했습니다.

알알이 영글어야 할 벼 이삭들이 죽정어로 남아 보기싫은 물골들이었어요. 결국 울타작은 작년의 반도 안되는 벼 서른 가마니. 방아를 찧어보니 모두 죽정이라 쌀은 열가마니도 못 건졌답니다.

그런데 명숙이를 더 슬프게 만든 것이 있었어요. 쌀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정부의 추곡 수매가격... 명숙이는 그만 쌀가마니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그녀는 내년에 또다시 농사를 지을 기력조차 잃고 말았어요. 이제 슬픈 농부의 아내가 싫어졌고,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명숙이는 오늘도 아침에 힘없이 나무지게를 지고 나간 남편을 기다리며 우울하고 침통한 표정으로 먼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일인당 국민소득 1천불이 넘는다고 떠드는 오늘에도, 몇 천 년을 물을 아끼지 않고 손발이 부르르도록 고생한 애달픈 농부들은 이토록 슬프고 고된 나날을 보내야 하나 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오늘도 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저 슬픈 농부의 아내 명숙이의 얼굴을 활짝 펴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글은 제3차 가톨릭 매스콤 워크샵에서 행한 라디오 5분 스피치 실습 원고임)

요십이 (300) 김병호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교통장관은 시내버스로
출퇴근을 하게하고

동력자원 장관 집에서는
연탄만 때게하고

경제 장관은 월급을
10만원만 주고 살게하고

내무 장관은 수도물이
잘 안 나오는 변두리에
살게 하겠는데...

사진재료 · 사진기계 · 도산매
칼라필름 ※교형 자매 우대
태 광 사
주 유 가에따스(영문)
전주시 중앙동(우체국 옆)
전화 ② 6346

◆경운기 · 분무기 · 전자동 탈곡기
트랙터 · 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금 · 은 · 보석 · 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열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석, 보료

문 화 양 행

오 중 원(아오스딩)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②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금 · 은 · 보석 · 시계
교우들의 연말 연시 선물은

황 시 계 점 으 로

황 의 성(아오스딩)

□전주시 서노송동 646 육교옆
☎ ③ 3252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송 옥 의 상 실

최 춘 자(로사리아)
(이 시 계 점 옆)
전화 ② 6219

◆오리표 싱크 · 가스기구 일체

동남 종합 싱크주방

김 락 균(요셉)
전화 3-6900
자택 6-0496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정문옆)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군·육지구 올드레아...오늘 오후 2시 30분, 대야성당에서
 2. 인성회 상임위원회...30일<월> 오후 2시, 교구청 회의실
 3. 혼인 문제 상담일...5월 1일<화> 오전 10시-오후 4시, 교구청에서
 4. 대학생 목사회...5월 4일<금>~6일<일>
 5. 인성회 주최<어린이 연수회>...5월 5일<토>~6일<일>
 6. 프란치스코 형제회 피점...5월 6일<일> 9시 30분, 중앙성당, 회비 1,000원과 도시락 지참 바람
 7. 초 분당 성령 세미나...5월 13<일>부터 7주 코스, 노송성당에서 (자세한 것은 전화 ㉠ 7032로 문의 바람)
- 숲정이 편지실 전화봉기 성금 감사합니다...전동 김병오 5천원, 해성중 축구부 3천원, 입실 사도회 1만원
진안 사도회 1만원, 김준호 신부 5천원

(중앙)

전화 ㉠ 3651 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오태원 사도 회장 이복석

1. 사도회 월례회 : 29일<일> 공식미사 후
 2. 어머니 합창단 정기총회 : 2일<수> 오전 10시
 3. 성심부녀회 : 4일<금> 어머니미사 후
 4.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지시다
봄 소풍 29일<일> 오전 9시, 장소 : 태극산
 5. 회합실을 깨끗이 합시다
 6. 청년 합창단 목외행사 : 3일<목> 운암에서
 7. 학생회 체육대회 : 3일<목> 해성중·고등학교
 8. 푸리아 목사회 : 12일<토> 오후 2시-13일<일>
장소 : 가톨릭센터. 신청마감일 : 29일<일> 사무실
- 지난주 봉헌금 : 221,715원

(서학동)

전화 ㉠ 2276 주임 신부 오현택 보좌 신부 황인구 사도 회장

1. 사도회 : 다음주 10시미사 후
 2. 중·고생 소풍 : 5월 5일
 3. 학생회 임원회 : 4월 29일 10시미사 후
 4. 수요기도회 : 5월 2일 밤 8시
 5. 제대·초·꽃 봉헌
초 : 원정자, 심금남, 권순근, 최바울라, 이베드로, 박애우제니아 각 1,300원
꽃 : 은요한, 원정자, 김실비아 각 2,000원
백영순(5,000원) 재학생회(3,000원)
김리드레나 화분 1점
- 지난주 봉헌금 : 72,867원

(노송동)

전화 ㉠ 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박종성 사도 회장 김성익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저녁미사 후
 2. 어머니 합창단 월례회 : 5월 4일 어머니미사 후
 3. 학생회 친선 체육대회 : 노송·복자 학생회
5월 5일 오전 9시 해성학교 교정. 많은 참여 바람
 4. 감사합니다 : 사제양성 후원기금(토끼저금통) 협조해 주신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못내신 가정은 속히 사무실에 가져오세요
 5. 교무금 납부의 날 :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매월 분납하여 본당운영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93,196원

(숲정이)

전화 ㉠ 7366 주임 신부 이대권 보좌 신부 이강노 사도 회장

1. 5월은 성모성월 : 매일 오후 8시 성모성월 드립니다 성모님의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요안회 월례회·신협 이사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성소주일 행사 : 5월 5일(주일학교·중고생) 사진 전시, 가톨릭센터
 4. 누갈다 부녀회 월례회 : 5월 5일
 5. 사도회 월례회·동양아파트 반상회
5월 6일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140,320원

(덕진)

전화 ㉠ 3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전중제 사도 회장 유제상

1.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토사리오 기도 열심히 합시다
 2. 사도회 월례회 : 5월 6일 공식미사 후
 3. 유아세례 : 매월 첫째(금) 오전 10시
 4. 5월 6일 성소주일 : 중고생 신학교 견학, 많은 참석 바람 어린이는 중앙성당 오후 2시
 5. 공소미사 : 일요일 오후 8시
둘째주일 : 내동리, 셋째주일 : 미산리, 넷째주일 : 전당리
 6. 교리반 소풍 : 어머니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5월 5일 어린이날
- 지난주 봉헌금 : 47,500원 교무금 : 135,800원

(전동)

전화 ㉠ 3222 주임 신부 김병익 보좌 신부 김기석 사도 회장 유순중

1. 글라라 형제회 : 오후 1시 30분
 2. 성화회 : 5월 5일(덕진)
 3. 미사시간 변경 : 저녁미사 8시(월요일부터)
 4. 사제양성 후원(토끼통) 내주세요
 5. 판공성사 안보신분 빨리보세요
 6. 본당내 학생 단합 체육대회
일시-5월 3일, 장소-전주 해성학교
- 지난주 봉헌금 : 211,655원

(복자)

전화 ㉠ 5238 주임 신부 김중택 보좌 신부 박성호 사도 회장 조성호

- ☆ 5월은 성모성월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반회장 회의 : 오늘 저녁미사 후
 3. 외인을 교회로 인도하는 서약서 : 다음주까지 미사에 봉헌 바람
 4. 중·고생 소풍 : 오늘 상관저수지(보좌신부님 인솔)
- 지난주 봉헌금 : 207,200원

(파티마)

전화 ㉠ 0915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채수현 사도 회장

- ※ 5월은 성모성월! 제일 좋은 시절!
1. 파티마 신용조합 : 5월 1일 업무개시
 2. 사도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병자방문 : 다음주<금> 5월 11일 어머니미사 후 미리 수녀님께 연락하세요
 4. 성소주일 : 5월 6일
 5. 주일학교 교리 및 미사 : 매주일 1시 30분
 6. 중·고생 교리 및 미사 : 매주(토) 오후 4시
 7. 유아세례 : 오늘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55,845원